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조사위 구성

내년 상반기중 조사 완료 가능 여부 최종 결정
거버넌스위, 주민 10인이상 집단질환 발생 검증단도 구성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 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환경영향조사 전문 위원회, 보건분야 검증단을 각각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각각 10명과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 9월 26일 제 14차 회의에서의 기본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영향조사도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제 16차 거버넌스 회의를 갖고 환경영향조사

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발전소 가동 시 호흡기질환 및 피부질환 등 주민 10인 이상 집단질환 발생 시 보건 분야 검증부분을 합의한 사항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본합의 후속대책 추진단은 지난 6일과 18일 두차례 후속대책 회의를 통해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환경영향조사의 절차·방법, 시기, 지점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환경영향조사 범위는 주민수용성조사 범위와 동일한 반경 5km 내, 측정지점은 9개 지점으로 확정됐다. 측정횟수는 SRF발전시설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로 하며, 가동 중 1회 측정지

점은 9개 지점 중 4개 지점을 5km 이내에 균등 배분하도록 법대위와 협의 조정하기로 했다. 조사항목은 대기오염물질 17개 항목(일반대기 7, 유해대기 10), 악취 10개 항목, 고형연료 성분 7개 항목, 소음 3개 지점, 굴뚝오염물질 19개 항목 등이다. SRF 발전시설 가동 전과 가동중 각 1차례 측정하되 대기오염물질(17개 항목)에 한해서는여 가동 중 1회를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선정과 환경영향조사 일시는 전문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후속대책 추진단은 환경영향조사의 SRF 발전시설 가동 시 지역주민의 건강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3개월간의 환경영향조사 기간 중에 주민 10인 이상의 집단질환(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보건분야 검증단도 구성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18일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가 체결한 환경영향조사 합의사항과 22일 보건분야 검증단이 체결한 합의사항에 추가적으로 10인 이상 집단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차기 거버넌스에서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내 환경영향조사 시행업체를 선정할 뒤 내년 3월까지 SRF 발전시설을 3개월(시험가동 2개월, 본가동 30일)을 가동해 내년 상반기중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주민 수용성 조사 및 손실보전방안 기본(안) 마련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정부합동평가
도단위 3위 '역대 최고'

전남도가 2019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전국 도 단위 3위에 올랐다. 전남도는 26일 "지난해 3월부터 부서별 워크숍, 시·군 추진상황 보고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집중 실시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24개 정부부처가 참여해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상황을 연 1회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전체 156개의 지표 가운데 87%인 135개가 시·군 실적까지 합산됨에 따라 시·군과도 보조를 맞춰왔다. 시·군 평가에서는 순천시 1위를 차지했으며, 여수시, 광양시, 화순군, 고흥군, 영광군, 담양군, 완도군, 보성군, 나주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도는 이들 상위 10개 시·군에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6일 오후 광주 남구 아시아 다문화커뮤니티 공원에서 열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기공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공식 세레머니 터치버튼을 누르고 있다.

광주시, 미디어아트창의도시 날개 편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건립 기공식

광주시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위한 거점 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6일 아시아 다문화커뮤니티 공원(광주문화재단 앞)에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rt and Media Technology Center·AMT)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 AMT 건립 공사는 총사업비 311억원

을 들여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후면 미디어 시티 광주'를 비전으로 부지 5547㎡, 연면적 9747㎡,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2층은 주차장, 미디어아트 기술 개발과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퓨처랩실'로 조성된다. 지상은 상설·기획 전시실, 컨벤션 룸, 미디어아트와 결합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AMT는 앞으로 시민, 예술가, 창의인력이 만드는 미디어아트 문화공간 및 미디어아트 창의 공간, 전 세계 창의도시를 연결하는 미디어아트 교류공간으로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2014년 12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선정을 계기로 이듬해 마스터 플랜을 세워 도시 경쟁력 강화, 유네스코 회원 도시로서 입지 구축에 힘써

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함께 즐기고 활용하는 문화향유 공간이 될 것"이라며 "가장 광주다운 것, 한국적인 것을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혁신과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에는 문학, 음악, 민속공예, 디자인, 영화, 미디어아트, 음식 등 7개 분야에서 84개국, 246개 도시가 선정됐다. 미디어아트 분야에서는 광주를 비롯해 프랑스 리옹, 일본 삿포로, 영국 요크, 미국 오스틴, 세네갈 다카르 등 16개국, 17개 도시가 지정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봉계입차로 등 4건 투자심사 없이 예산 편성

전남도, 고흥군 부적정 행정 61건 적발 84명 조치 요구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투자심사조차 거치지 않는가 하면,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무시하고 최대 15개월까지 처리를 늦추는 등 고흥군의 부적정한 행정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고흥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61건을 적발해 8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18억9600만원을 추정·감액·회수토록 조치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최근 3년 간 고흥군 봉황·직속 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이같은 부적정한 업무 실태를 적발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절대평가를 내부 검토 없이 설계 업체에 맡겼고 설계 업체에서 부적정하게 수행한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도 진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또 납품 지연 기자재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해야 하는 데도 18개월간 하자보수를 허용하는 편법

으로 4억2000만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20억원 이상 자체 재원 부담사업은 투자심사를 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1회 추경 예산편성 시 봉계입차로 등 4건 225억원 상당의 사업을 투자심사 없이 편성했다. 5급 승진대상자는 승진후보자 성적과 교육 훈련 성적을 합산해 고득점자부터 임용해야 하는데도 2·3순위를 1순위보다 먼저 승진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태양광시설 부지 등 48건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무신경함을 드러냈다. 개발행위 16건은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전 기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하는 등 미숙한 행정으로 신뢰성을 훼손했다. 지역민들이 요청한 정보공개 처리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공개 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토록 하고 있지만 최근 3년 간 이뤄진 38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최대 15개월까지 처리를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중국 지방정부와 우호 교류 협력 강화

6개 지방정부 대표 등 초청
교류 회의·관광 산업 시찰

전남도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6개 지방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전남도내 주요 시설을 공개하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대중국 무역 증대, 관광객 유치, 항공 노선 신설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26일 목포 폰타나비치호텔에서 '전남도-중국 우호지역 교류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9일까지 관광·산업 시찰행사를 열어 전남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전남도-중국 우호지역 교류회의'는 지방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확대·발전시

키고, 우호 교류 협력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아 저장성, 장시성, 산시성, 상하이시, 구이저우성, 쓰촨성 중국 6개 지방정부 대표단과 주광주중국총영사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교류회의에서는 전남의 새 천 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전남의 체험관광, 투자 여건, 전남-중국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발표·토론이 진행됐다. 27일부터는 남도문화 소개·체험을 위해 순천 낙안읍성,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 전남 주요 관광, 산업 지역을 시찰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어민이 키운 양식참조기 식탁 오른다

해양수산과학원 수정란 제공
14개 양식어가 조만간 출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6일 "올해 대량 생산한 참조기 수정란이 양식 현장에서 어업인의 손길로 정성껏 길러진 뒤 영광군 수협과 가공업체로 출하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서해특산시험장(영광지원)은 참조기 인공수

정란 3만7000cc를 민간 종자생산업체에 제공한 바 있다. 이 수정란에서 350만 마리의 어린 조기가 생산됐으며, 5월부터 양식을 희망하는 영광·함평의 종자생산업체 5개소와 영광·완도·여수·신안 소재 14개 양식어가가 이를 키웠다. 현재 14개 양식어가에서는 200만 마리를 양식하고 있고, 본격 출하되면 20억원의 어가소득이 창출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